

민·관 협력형 | 38-2

한국산 CCTV로 FTA ZOOM-IN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W사는 매출 602억, 종업원수 104명인 CCTV Camera 제조업체

2. FTA 활용전 상황

- CCTV Camera 1개의 품목이지만, 다양한 모델에 따른 원재료 종류가 많고,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

3. 장애 요인

- 수많은 원재료 사용으로 여러 모델을 생산함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어렵고, 영세한 협력업체의 FTA활용 능력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

4. 극복 방법

-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과 1:1 현장컨설팅 활용으로 기업지원 및 FTA 관련 설명회, 교육 실시
-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도움으로 한-EU 및 한-아세안 FTA에 따른 여러 종류의 원재료를 관리
-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직접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(포괄)확인서 제출

5. 활용 효과

- 한-미 FTA(2.1%→0%), 한-EU FTA(4.9%→0%) 적용으로 상대국에서 관세절감 효과에 따른 거래 확대 및 수출물량 증가 예상

6. 시사점

- 여러 모델별로 원재료의 종류가 많은 경우, FTA-PASS를 사용하여 다품종의 원재료를 관리하고,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적극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실시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를 수행 가능